



남원소방서, 화재 시 피난 돕는 완강기 체험 나서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지난 25일 주력 및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피난을 돕는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홍보하고 나섰다.

화재가 발생하면 실내가 연기로 가득 차 익숙하지 않은 피난기구를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체험을 통해 사용법을 익혀야 하는 것으로,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는 2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해야 한다.

특히, 숙박시설은 '객실마다' 완강기를 설치해야 하며, 완강기 사용법은 △교체로 완강기 걸고 잠그기 △지지대를 침착으로 밟고 밟(줄) 던지기 △완강기 벨트 조이기 △벽을 짚으며 하강 순이다.

주의사항에는 완강기가 앵커 볼트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지지대가 흔들리다면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고, 팔을 위로 올리면 안전벨트가 벗겨질 위험이 크므로 벨트를 겨드랑이 밑에 걸고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소방서, 도시탐색 인명구조 훈련 실시

무주소방서는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지진 및 테러 등에 의한 건물 붕괴 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29일 장수군에서 지진(진도5.5)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추진된 이번 훈련은 건물붕괴 시 위험요소 파악 및 신속한 인명구조 등 구조대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했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붕괴건축물 안전화 방법 △매몰자 탐색요령 △탐색장비 시연 및 실습 △탐색 구조 시 유의사항 등이다.

무주소방서 관계자는 "붕괴현장에서 신속한 인명구조와 구조활동은 구조대원들의 숙달된 능력이 필요하다"며 "구조대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다양한 인명구조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경찰, 공원·체육시설 등 순찰활동

장수경찰서(서장 정덕교) 여성청소년계(자치경찰사무)는 지난 28일 두루두루-앵글존 순찰구역 5개소에 대한 파출소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순찰을 최근 칼부림, 공원 성폭행 등 연이어 강력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체육시설 등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치안활동을 실시했다.

장수경찰서는 여성안전·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해 장수읍(한누리전당, 공실운동장, 노허리 숲), 장계면(체육공원, 천변길), 계남면(계남중 뒷길 우회도로), 계북면(참샘골 체육관), 천천면(천변길), 번암면(물빛공원, 번암체육관), 산서면(산서 뚝방길) 등 11개소를 앵글존 순찰 지역으로 지정하여 기존 실시하고 있는 탄력순찰과 병행하여 20시부터 22시까지 가시적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범죄사각대를 제거하고 주민들이 평온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주민 중심의 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정덕교 서장은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실시하여 범죄 사전 예방 및 주민들에게 언제나 경찰이 곁에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대 GTEP사업단, 지역기업 제품 수출 성과

'홍콩 푸드 엑스포 프로' 전시회 참가 35만 달러 수출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이하 GTEP사업단, 단장 김민호)이 약 35만 달러의 지역기업 제품을 수출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GTEP사업단은 최근 홍콩에서 열린 '2023 홍콩 푸드 엑스포 프로' 전시회에 참가해 지역 산학협력 기업 '한국에플리즈'의 과실주와 사과 와인 제품 '애플수북', '비진나인틴', '에피소드'를 수출했다.

47개 기업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에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GTEP사업단 청년무역전문가 문의연·오가연(무역학과) 학생 등이 통역 및 수출 업무를 지원했다.

특히 청년무역전문가들은 부스 설치와 전시, 상담 등 전 과정을 직접 준비, 24건의 해외 바이어 상담을 통해 35만 달러 상당의 수출 실적을 거뒀다.

김민호 GTEP사업단장은 "산학협력에 강한 글로벌 대학인 전북대가 지역기업 제품으로 해외 시장까지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며 "수출길을 더욱 넓혀 지역과 세계의 가교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를 개척하고 있다"며 "수출길을 더욱 넓혀 지역과 세계의 가교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최진오 동김제농협조합장, 이웃 사랑 김치 기탁

동김제농협조합장(최진오)은 농남지점 농가주부모임회원들과 김치담그기 행사를 마친 후,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주민에게 전달해 달라며 김치 3kg 100통 300만 원 상당의 이웃돕기 물품을 김제시에 기탁했다.

동김제농협 농남지점 농가주부모임 회원 30여 명은 2008년부터 김장 나눔 사업을 시작해 해마다 김치를 담가 지역의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최진오 조합장은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주민들에게 갖 담은 김치를 지원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나눔과 온정의 손길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공고 관악부, 2개 대회 연속 문체부장관상

전주공업고등학교 관악부는 지난 15일 열린 '2023년 제47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 전체 대상에 이어 22~24일 개최된 제20회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에서도 대상을 수상하며 77년 전통의 저력을 보여줬다.

제20회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는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며, 춘천시와 춘천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전국 최대규모 대회다.

이 대회는 전국 초·중·고 41개 팀이 참가, 전주공업고등학교는 지정곡으로 '내한의 기상'과 자유곡 'At The Break of Gondwana'를 연주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규훈 교사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악기 지원과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는 학교장, 그리고 동창회 관계자들의 도움이 컸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홍화 교장은 대상을 받은 지도교사와 특기적성 및 학교



의 명예를 위해 노력하는 학생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77년 전통의 관악부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도 약속했다. 우주생 전주공고 관악동문 회장은 "모교와 동창회 및 관악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관악부와 지도교사 그리고 학생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했다.

전주온빛중 '온빛오케스트라', 전국대회 2개상 수상

전주온빛중학교 온빛오케스트라는 지난 14일 강원도 태백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47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 및 우수교가연주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5년 교육부지정으로 학생오케스트라가 창단, 올해로 9년째 운영되고 있는 온빛오케스트라는 최경락 교사의 지도 아래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에 위치한 전주온빛초, 전주민성초, 전주온빛중학교 재학생 60여 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이탈리아 6개 도시 순회공연을 실시 하고, 7번의 정기연주회와 혁신도시 주민을 위한 마을 음악회, 각종 공공사에서 주최하는 공연에 초청되기도 했다.

온빛오케스트라의 단무장을 맡고 있는 전수연 학생(3년·피아노)은 "그동안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연습을 쉬지 않고 열심한 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문환 교장은 "매일 이른 아침부터 연습하는 우리 학생들의 노력과 학부모들의 응원이 더해져 멋진 연주를 펼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학교



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온빛중학교 온빛오케스트라는 오는 10월 혁신도시 주민을 위한 마을 음악회와 12월 제8회 정기연주회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선관위, 도교육청 학생의회와 '도란도란 토론교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의원들과 함께 민주적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성숙한 토론문화 확산을 위한 '도란도란 토론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장수군학생의회를 시작으로 이달 24일 진안, 25일 남원시 학생의회까지 총 3회 7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월드카페(world cafe)형식으로 진행된 토론교실에서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려면 △학교 교육 자율화 △남녀 차이에 따른 인정 어디까지일까? 등 학교와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통해 주제를 선정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내는 등 학생의원으로서 안전과 정책을 구성하고 이를 풀어나가는 역할을 넓혀나갔다.

토론교실에 참여한 학생은 "토론이라고 하면 내 생각만 말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 친구들과 여러 의견을 공유하면서 생각의 틀을 넓힐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는 올바른 방법을 익힌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강조했다.



전북선관위는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청소년이 갖춰야 할 민주시민 의식과 토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장은성 기자



김제 용지면 지사협, 사랑의 밑반찬 나눔

김제시 용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조원태, 민간위원장 최병삼)는 지난 25일 용지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관내 결식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밑반찬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화사업은 거동 불편의 독거노인 및 독거 청·장년 80세대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계란(특란)과 조미김을 용지면 협의체 위원들이 대상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고 안부도 확인하는 등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용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년 밑반찬 나눔 활동을 비롯해 저소득층 이동 입학 선물 지원 현관문 방충망 설치 지원, 소규모 집수리 사업 지원 김장 김치 나눔 지원 등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임실 신평면 행복나눔협의체, 이동 빨래 봉사

신평면 행복나눔협의체(공공위원장 염진선, 민간위원장 손원진)와 임실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민숙)가 지난 25일 신평면 상가마을에서 이동 빨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상가마을 경로당 앞에서 이동 세탁 차량을 이용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혼자서는 빨기 힘들었던 이불 빨래 등을 수거하여 깨끗하게 세탁했다.

긴 장마철이 끝나고 폭염이 이어지다 반복되는 비로 이동 빨래지원사업 진행이 힘들었지만, 협의체 회원 및 자원봉사자들은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빨래 봉사로 기쁨을 내었다.

신평면 행복나눔협의체는 특화사업으로 이동 빨래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따뜻한 식사 한 끼, 어르신과 특별한 하루, 더살짝잔 등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작은 봉사활동이지만 이웃을 위한 도움을 주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을지연습·민방위 훈련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023년 을지연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3년 을지연습 기간 중에는 "충무계획 실효성 토의 및 안보교육을 통해 전시상황 시 개인별 임무를 확인하며 대비체계를 확립하고, 소방 및 생활안전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재난 대응 능력을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습 대비 전국에서 동시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을 다양한 매체로 홍보하고, 대피 훈련 이후 방독면 사용 방법을 익히며 훈련에 동참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23년 11월 20일 등록(인간) (9)683912 전주시 완산구 7-1내내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근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945-4113 삼천지사 010-2338-4791 사산지사 272-9417 호지지사 010-6945-9995 중양지사 010-9388-6874 인후지사 246-6955 순천지사 255-2474 팔복지사 253-6844 군소지사 010-6788-0388 익산지사 658-9923 남원지사 632-3366 김제지사 516-4227 남원지사 632-0365 순창지사 66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령지사 663-6999 임실지사 010-9842-2725 진안지사 433-3384 정읍지사 538-3787 장수지사 010-3882-6157 무주지사 010-2330-4268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